

첫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타일러 초청 강연

남원시는 18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타일러씨를 강사로 초청, '등잔 밑이 다채롭다'라는 주제로 2025년 첫 번째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타일러와 함께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양성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평생교육 사업인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는 평소 책이나 방송, 유튜브로만 보았던 명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교육·문화적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 20여 년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2025년 Play남원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을 중심으로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인문학적 깊이와 공연을 결합하여 시민의 감각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토크 콘서트형 강연을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및 들불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림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봄철로 접어들면 기온이 상승하며 산림의 상대습도가 낮아져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

안전수칙을으로는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담배꽂초 투기 금지 등이다.

또한, 산불이나 들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직무·안전교육

진안군은 오는 14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346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 공익활동사업' 및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노인일자리 사업 이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일지 작성법교육 등 필수 내용을 다뤘다. 특히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경력 단절 여성들 일자리 창출 위해 '맞손'

진안군,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내 7개 기업,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진안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와 관내 7개 기업이 함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 회의에는 모두 15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했으며 △무진장축매지푸드,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행복한 노인복지센터, △참식품(주), △사회복지법인 낮은자리 한마실, △진안군 가족센터,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등 7개 기업·기관이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을 채용해 여성들의 직업 현장 복귀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또한 이날 함께 진행된 정부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회

를 통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등 기업맞춤형 정부 지원제도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활용과 컨설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정희 원장은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여성 인력을 집중 양성해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원현주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행정 간에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에 더 많은 여성친화 일촌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토종종자 교육으로 미래 농업 준비

'토종종자 관리과정' 신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토종종자 관리과정'을 신설하고, 지난 10일 첫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토종종자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실무 중심의 재배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다루며, 농업인과 도민의 관심 속에서 첫 회차 교육생 60명이 참여했다.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토종종자는 우리 땅에서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자생력을 길러온 농작물로, 최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생물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토종종자의 개념 및 종류 △재종 및 종자 수집 방법 △토종작물의 특성과 재배관리 △현장 사례 공유 등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특히, 교육생들에게 종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종 및 재배관리법 등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며, 토종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면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토종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토종종자 보존과 확산을 위해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자봉센터,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 개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11일 마이산 탐사에서 제13회 진안군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마이산탐사(주지스님 진성)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0kg들이 백미 100포(총 1,000kg)를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된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10개 면 봉사단과 24개 결연 기관 및 단체에서 약 6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달식이 끝난 후 각 가정을 방문해 백미를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요섭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은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백미 전달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마이산탐사 진성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백미는 따뜻한 봄 기운과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026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문화가족 연수, 장애인유권자 연수, 새내기유권자 연수 등 대상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그동안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 및 선거참여 의식 확산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거교육을 확대하여 이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일정으로 10일 부안군가족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교육하고 투·개표 등 선거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개공, 임직원 대상 CS 역량강화교육 진행

전북개발공사는 11일 공사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CS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JS커뮤니케이션 박정순 대표를 초청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다양화되는 고객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학습을 통해 업무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사 CS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